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9년 만에 4차로 확장 개통

빠르고 안전한 도로 통해 양 지역 교류 활성화



담양군은 담양읍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정류단지에 이르는 국도 24호선 담양-순창 도로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담양군이 절반씩 비용을 분담해 지역 민원을 해결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시설물로는 길이 240m의 대교터널과 교량 9개소, 교차로 8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봉서교터널은 당초 일 방향 불완전 교차로로 계획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당국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양 방향 입체교 차로로 변경됐다.

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담양군이 절반씩 비용을 분담해 지역 민원을 해결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사로 이전보다 운행거리 는 13.8km에서 11.8km로 2.0km, 운행 시간은 당초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군 관계자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담양군과 순창군의 관광지원 연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스타트

곡성군이 18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주민 11명과 군 읍면공무원 등 36명이 참여하는 ‘제5기 좋은경관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새롭게 발족했다.

추진단은 전라남도 좋은경관만들기와 연계하여 께웃하고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경관 개선을 위해 께족한 것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 제1기 추진단이 처음 발족하여 2년 주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4기 추진단이 활동을 미침에 따라 제5기가 새롭게 께족하게 된 것이다. 제5기 추진단원들은 읍면 이장, 자치위원, 권역 사업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년 동안 지역 곳곳의 경관,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주민 추진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추진단의 역할과 임무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제5기 추진단은 앞으로 경관보전 활동과 함께 소규모 공원조성, 벽화, 마을경관개선 등 주요 경관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곡성=김광희 기자

화순군 드림스타트, 가족스키캠프 운영



화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가족스키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은 아동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건강한 신체단련 및 가족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가족스키캠프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족 4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양지파인리조트 스キー장에서 스キー 안전교육, 스키강습 및 리프트 탑승 등 신나게 스��를 즐겼다.

화순=박순철 기자

또 에버랜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아이들은 학교 등 스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어른들은 기회가 거의 없다.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스끼를 즐기게 꽤 너무 행복했다”고 전했다.

드림스타트는 하늘이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보건·복지·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현장중심 지역유망작목 육성 교육

겨울철 재배포장 관리요령 및 접목 실습교육 실시



였다.
재배포장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지역 대표작목 재배농가 및 교육 회망농가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지역유망작목 재배기술 습득을 목표로 작목별 묘목

장흥군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까지 지역 대표작목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지역유망작목 재배기술 습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

선택 요령, 겨울철 포장관리 방법, 자기증식을 위한 접목·삽목기술, 전정기술 등과 2019년 PLS 전면시행 대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달에는 17일 참대래를 시작으로 사과대추, 레드향, 블루베리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말까지는 1차 집중교육 기간으로 설정해 작물별 겨울철 재배포장 관리요령과 묘목 접목기술 교육 등 현장적용기술 습득 훈련을 실시한다.

내년 2월부터는 1차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각 품목별 포장에서 전정 및 접목·삽목 등 현장적용기술을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품목별 재배농가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형 교육으로서 품목별 재배 이해와 실습교육 등을 통한 우리군 대표작목 재배기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군, 문화재 사업 추진 박차

문화재 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완도군은 구 당시도 등대 국기문화 등록과 문화재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1900년대 만들어진 완도군 소안면 구 당시도 등대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막기 위해 소안도 주민들과 의병들이 1909년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로 항일 독립운동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1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군은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 ‘기리포진 지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전시 영상관 건립, 헌왕묘 재건, 이순신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총 사업비 88억 원 현재 50억 원이 확보되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삼도수군통제영 재건, 봉수대·옛 활터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은 예정 사업비 190억 원으로 현재 완도군 고금면에 위치한 해남도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를 이번 12월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진된 기리포진에 대한 ‘기리포진 지원화 사업’은 예정 사업비 90억 원이며, 지난 8월 기리포진 지표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는 기리포진 시발굴 조사 용역 중에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지상·지하시설물 파악’ 여수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통신·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까지 관리 가능



용도를 높였다.

특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Open API’ 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 하천은 물론 통신, 전기,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통합해 공유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처리는 물론 도로굴착 시 폭발사고 등 대규모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에 구애 없이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시스템 확장성을 높여 향후 타지자체에도 보급할 수 있는 우수정보시스템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